

# 어린이 포교, 어른 포교와 별개 아니다

##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동네 아이들은 잡자리를 잡아 꼬리를 자르고 풀대를 꼬리에 끼워 날려 보냈다. 풀대를 몸에 끼운 채 필사적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에 친구들과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뛰어 놀았다. 때론 때뭉기를 잡아 장난치다 닭 모이로 던져주고, 개구리도 잡아 조물조물 거리다 지겹다 싶으면 내동댕이쳤다. 전진난만하게 뛰놀기 바빴던 아이는 1953년 11세 되던 해 서른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손에 이끌리어 양산 통도사로 출가해 자운 스님을 만났다. 자운 스님은 어린 아이에게 3000배 참회를 시켰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참회를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3000배 참회의 의미를 알게 된다. 재미삼아 못생명을 함부로 대한 자신을 참회하고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 불교를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미혹한 중생은 인과법을 알지 못해 자연을 함부로 대하며, 이웃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삼라만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을 알게 된다.

아이의 서른을 거뜬히 넘겼다. 59년 절집 생활을 하는 동안 그에게는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대표하는 스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다.

스님은 정정계율을 근간으로 수행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던 자운 스님(慈雲, 1911~1992)을 40년간 시봉하며 선지식을 두루 만난 것이 구뭉이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석주·운문·정관 스님 등은 혜총 스님의 포교 활동에 지혜의 안목을 던져준다.

1986년 동원 출법과 함께 혜총 스님의 어린이 포교는 본격화 됐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맡은 혜총 스님은 1994년 복지법인 불국도를 이끌며 부산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1989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혜총 스님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포교였다. 스님은 어린 시절 불교를 경험한 사람이 많으면 많은 수록 사회는 밝고 향기로운 불국도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2006년 11월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취임해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2009년 12월 포교원장 직속의 종책기구인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발족해 지속적인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전담하도록 했



다.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혜총 스님에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해 물었다.

###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계기는

“순진무구함, 때 묻지 않은 어린이의 말과 행동이 곧 본래면목(本來面目)이고 불교다. 어린이를 통해서 불법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

일찍 출가한 스님들에게 포교와 수행의 기회가 많음을 알고 일찍 절에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 말 한마디, 생각, 행동 하나 하나에 향기가 난다. 즉 자기를 이롭게 하고 집안을 이롭게 하며 사회를 이롭게 해 불국정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하기 시작했다.”

### 불교적인 가치관이 어린이·청소년들의 삶과 학습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나.

“유치원 체험학습 중에는 곤충을 잡아서 표본을 만들거나, 때뭉기를 잡아서 즉석 튀김 맛보기 같은 것이 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학습을 그런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교는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다. ‘나’만이 아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존하며 살고 있음을 자연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불교에서는 때뭉기와 사 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때뭉기를 풀대에 꽂아 볶아 먹는 것은 결국 내가 아픈 것이다.

불교는 사물을 바르게 보고 더불어 살며 자신의 몫도 찾는 것이다. 동시에 상대의 몫을 존경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때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늘 소외돼 있었다.

“어린이 포교와 어른 포교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른이 모범이 돼야 한다. 어른의 몸짓·말·행동을 어린이들이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이다. 포교의 핵은 어린이에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시작으로 포교가 확대 돼야 한다. 마치 확고부동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따라서 중장년, 노년층이 인생의 마지막 회향을 불교에 귀 의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불교가 늙어간다고 하지만 불교에서 늙음과 젊음은 돌이 아니다. 불교에 일찍 귀의하면 일찍 귀의한 만큼의 뜻이 있고, 늦게 귀의하

면 늦게 귀의한 만큼의 가치와 뜻이 있다.”

### 중단차원의 지원과 방향은

“누가 포교원장을 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포교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진행돼야 할 불사(佛事)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단순한 원력만 갖고 하기는 힘들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어린이청소년위원회 등을 구성해 포교를 원만히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중단은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통해 포교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것과 발맞춰 조계종 제33대 집행부는 제도적으로도 어린이·청소년 포교성과를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인사사고 제도에 반영하도록 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살, 성인 남녀, 노년층까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 자살은 종교인의 책임이고 내 책임이다. 빨리 포교를 해서 자살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손이 못 미쳐 안타까웠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싶었는데 여력

도 없고 쉽지 않았다.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깊이 있게 조명해야 된다. 사회법으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불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는데 급급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 쫓다보니 막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가속페달을 밟는 것 같다. 이 시대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불교나 인문학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 불교나 인문학 발전이 어떻게 자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불교는 불교문화가 아니라 민족문화다. 국가에서 인문학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인문학과 민족전통문화인 불교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특히 생사의 문제는 불교가 답해줄 수 있다.

얼마 전 청와대 법회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는 종교가 아닌 민족의 살아있는 문화다. 승가 조직이 있는 살아있는 민족문화를 소홀히

여겨져 되겠는가. 불교문화와 관련된 예상은 소모가 아니라 계승하는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알아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중 불교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이다. 불교의 기본은 수행이고, 수행이 따르지 않는 포교는 있을 수 없다. 보시, 포교 모두 수행이고 두분불출하고 수행하는 것도 포교이고 수행이다. 수행으로 올곧게 나가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포교 등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것 같다.

“행복과 고통 또한 돌이 아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해를 만하고 살아볼만한 세상이다.”

포교원장으로서의 역할이나 활동이 쉽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은 “포교가 곧 수행”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해 힘쓰면서도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단지 “포교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줄 때 행복했다”고 말했다.

###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소리 없이 정진해온 현장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려분들은 불교의 희망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힘 닿는대까지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이와 함께 안국선원 수불 스님, 한마을 선원 혜원 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 등 어린이 포교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대한 관심에 감사로 전한다.”

글=이상언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 혜총 스님은...

1943년 경남 총무에서 태어나 1953년 통도사에 입산. 보경 스님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계. 해인사와 법어사 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1964년 지효 스님에게서 건당(建幢). 자운 스님을 40여 년 모셨다. 현재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합회 총재, 갑로사 주지,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저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새벽처럼 깨어 있을라) 등.

##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중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 종 정**  
총무원장: 혜인  
사서실장: 대산

**역경원장:** 혜산법종

**총무원**  
부원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정대  
재무부장: 해만  
교무부장: 해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문화부장: 지운  
선거대책총무부장: 현덕  
총무국장: 천산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남산

**교육원장:** 원광  
교무부원장: 광덕  
의식부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원 로 원:**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총 회의 장:**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수원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총무원장: 정산  
서울서부총무원장: 중산  
서울남부총무원장: 보덕  
서울북부총무원장: 선행  
경기총무원장: 도불  
경기동부총무원장: 법성  
경기서부총무원장: 덕산  
경남총무원장: 해인  
강원총무원장: 광덕

충남총무원장: 혜덕  
충북총무원장: 학산  
대구총무원장: 원명  
제주총무원장: 정오  
경남남부총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총무원장: 지명  
경남청원총무원장: 지원  
경북총무원장: 원광  
부산총무원장: 정오  
부산북부총무원장: 수산

전남총무원장: 도명  
광주총무원장: 지각  
전북총무원장: 법성  
제주총무원장: 정오  
울산총무원장: 혜능  
일본오사카총무원장: 인혜  
일본동경총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총무원장: 중산청목

**■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사회국장: 법산  
유현석

이사: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산,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중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에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립**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전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중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총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안권식  
박국서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법종 부학장: 일봉  
교 수: 법종, 백공, 해운, 율공,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근  
조 교: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혜인  
교 수: 법종, 정수, 승암, 성민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총의약대학**  
총 장: 오연화 부 학 장: 정오, 남산  
한국총장: 손혜인 중국총장: 손영진  
학생처장: 손영진 조 교: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과장: 이안산  
운영이사: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중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총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